

해남군, 2023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5억원 사업비 확보...우수영관광지·송호해수욕장 중심 무장애 관광 동선 개발 등 점자 안내판 등 관광 안내 체계 정비

해남군이 2023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신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지 내에서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우수영관광지와 송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타고 관광지 구석구석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동선을 개발·구축하고 점자 안내판, 리플릿 등 무장애 관광 안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 이후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대표관광지의 무장애 관광 동선을 구축하여 모든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관광약자들도 찾아오기 쉬운, 다시 오고 싶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알고 보면 더 재밌다 내년 5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완도 개최

200만 전남 도민 화합의 스포츠 축제인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2023년 5월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24개 종목(정식 종목 22, 시범 1, 전시 1),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2023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21개 종목(정식 종목 21)이 22개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종목별 경기 규칙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한다. 첫 번째 종목은 '배구'다. 배구는 각 6명 또는 9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 코트 안에 공을 떨어뜨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제62회 전남체전 배구 경기는 202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청해진스포츠펠드에서 22개 시군 33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극동식 토너먼트(9인제), 3세트(1세트 21점)로 경기가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감독, 코치 외 선수 15명 이내로 남자가 주로 참가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여자도 참가한다. 참가 자격은 전라남도 출신자로 정해진 기간 내에 도민체전 참가 등록을 마쳐야 하며, 타 시도 실업·직장·군인·학교 팀의 선수와 중앙종목 단체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심판은 매 경기별로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2명으로 구성되며, 주심과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고, 선심은 사이드라인과 엔드 라인에서 공의 아웃 여부를 판정한다. 지난 2022년 제61회 대회에서는 1위 순천, 2위 장흥, 3위 광양, 고흥, 2019년 제58회 대회에서는 1위 보성, 2위 순천, 3위 신안, 해남, 2018년 제57회 대회에서는 1위 광양, 2위 고흥, 3위 장흥, 영암이 차지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대회 개최가 취소됐다. 제62회 대회는 전통 강호 순천시가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2018년 1위 광양시와 2019년 1위 보성군이 2022년 1위를 한 순천시와 경기에서 각각 4강, 8강 탈락의 아픔을 딛고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매년 꾸준히 상위권에 입상 중인 장흥과 고흥의 활약도 내년 대회에서 눈여겨볼 만할 것이다. 완도군은 2019년과 2022년 예선전에서 강호 보성군에 패하며 탈락했지만, 제62회 대회에서는 개최지 이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설군 이래 첫 개최하는 양 대회를 선수, 군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경제 체전으로 개최하고자 지난 9월 체전추진팀을 신설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 찾아가는 김 양식 어업인 상담실 운영 '호응'

김 업체 성장도·갯병 진단 등 다양한 양식기술 지도 진행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은 본격적인 김 채취가 시작되는 장흥해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찾아가는 김 양식 어업인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현장 상담실에는 물김생산자협회 김재홍 회장과 김 양식어업인들이 참석하여 김 업체 형태 및 성장도, 질병 발생 유무 등 현미경 검

을 통해 김 양식 정보 및 건강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13개 시료를 확보하여 현미경 검경한 결과 정상 5개소, 액포비대 경증 5개소, 액포비대 중증 3개소로 확인이 되었고 갯병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황백화가 발생하면 업체 퇴색과 세포질 내 액포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장

흥해역의 김 업체는 육안상으로 색택 변화는 없었고 액포비대 현상만 일부 어장에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뭄에 따른 '용존무기질소' 등 영양염류 부족과 관련이 있다. 김 업체 액포비대 증상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장흥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하강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흥지원은 김 양식 어업인이 어업현장에서 직접 김 유업 세포를 검경할 수 있는

휴대용 현미경을 배부하여 어업인 스스로 김 발을 검경하고 세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장흥 물김생산자협회 김재홍 회장은 "물김 채취시기에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김 양식 어업인 상담실 운영'이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상담실 운영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상국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관내 영양염류 농도 및 수온정보를 김 양식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김 양식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벼 정부보급종 및 옥수수 종자 공급나서

강진군이 22년산 벼 정부보급종과 강원도산 옥수수 종자를 공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보급할 정부보급종 예시량은 224.6톤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영호진미, 백옥찰, 동진찰, 조명1호, 윤광벼 7종이다. 신청 단위는 20kg/포 기준으로 파종 전 종자 소독이 필요한 미소독 종자이다. 공급가격은 내년 1월 결정될 예정이며, 신청 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품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옥수수 종자도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방문·전화 신청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휴식과 힐링의 공간 '스마트 가든' 조성



청사 2·3·4층 로비, 덩터미 변신 진도군이 공공시설 이용자의 휴식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가든'을 최근 조성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스마트 가든은 식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수, 성장조절, 조명관리 등 식물 생육을 자동관리하는 실내정원이다. 공기 유해물질 저감과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정화효과가 탁월한 스킨담서스, 스노우사파이어 등을 식재해 균형을 방문하는 군민들이 휴식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제어시스템의 자동화로 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자연친화적 휴게공간인 스마트 가든에서 군민들이 바쁜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가든을 다른 공공기관과 교육시설 등에 조성해 군민들의 휴식·힐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